



## Global ETF

### Compliance Notice

본 조서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2026년 5월 26일 | Global Asset Research

# New K-ETF

##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삼성전자 & SK하이닉스

### 신규 상장 ETF(5/27)

#### - 삼성전자 레버리지 ETF &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16종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들이 상장된다. 정책 당국은 지난 1월에 국내 상장 ETF와 해외상장 ETF 간의 비대칭적 규제에서 발생하는 투자자들의 수요 유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들을 예고했었고, 이후 약 3개월만에 등장하는 새로운 카테고리의 국내 ETF 종목들이 되겠다.

원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들은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증시에 투자할 때 가장 많이 선택하는 유형 가운데 하나이다. 반도체 업종 3배 레버리지 ETF인 SOXL(인버스 3배: SOXS)이나 나스닥 3배 레버리지 ETF인 TQQQ(인버스 3배: SQQQ) 등 지수형 레버리지 ETF들과 더불어 TSLL(Tesla), NVDL(Nvidia), SNXX(Sandisk), MUU(Micron) 등의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 ETF들은 올해에도 서학개미의 거래 규모 상위권에 자리하고 있는 종목들이다.

삼성자산운용, 미래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 KB자산운용, 한화자산운용, 키움투자자산운용, 하나자산운용, 신한자산운용의 8개 자산운용사에서 각 운용사별로 2개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들을 상장한다. 삼성과 미래, 한투, KB, 키움, 하나자산운용은 삼성전자 레버리지 ETF와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를 각각 한 종목씩 상장시키는데, 이 가운데 키움과 하나자산운용의 레버리지 ETF들은 선물로만 운용되는 선물형 ETF이다.

한화자산운용은 삼성전자의 레버리지 ETF와 곱버스(인버스 2배) ETF를, 신한자산운용은 SK하이닉스의 레버리지 ETF와 곱버스(인버스 2배) ETF를 상장한다. 참고로 기초자산 별로 유일하게 상장되는 곱버스 ETF들은 모두 선물형으로 운용된다.

한편 정책 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기초자산에 대하여 직전 3개월간 1) 유가증권시장 내 평균 시가총액 비중이 10%이상이며, 2) 평균 거래대금 비중 5% 이상, 3) 평균 국내 주식선물 및 주식옵션 거래대금 비중도 해당 파생상품 시장의 1% 이상인 동시에, 4) 국제 신용평가사 신용등급이 투자적격 등급 이상을 부여받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현 기준이 유지되는 구조 하에서는 당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외에 다른 기초자산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출시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물형 레버리지 ETF & 선물형 레버리지 ETF:** 총 16개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들 가운데 10개 종목들은 현물과 선물을 함께 활용하여 운용하는 현물형 레버리지 ETF이며, 곱버스를 포함한 6개 종목들은 선물 포지션으로만 운용되는 선물형 레버리지 ETF(종목명에 '선물' 표기)로 분류된다.

① **현물형 레버리지 ETF:** 현물형 레버리지 ETF는 기본적으로 기초자산의 실제 주식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뒤, 추가적으로 선물 포지션을 활용해 레버리지 효과를 만드는 구조이다. 투자자금이 유입되면 운용사는 먼저 해당 종목의 현물을 100% 매수하고, 이후 동일한 규모의



Global ETF 박승진 sj81.park@hanafn.com  
RA 신민건 mingun.shin@hanafn.com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선물 계약을 추가로 매수하여 총 200% 수준의 익스포저를 구축한다. 이 과정에서 투자금 대부분이 실제 주식 매입에 사용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다만 이러한 구조는 유동성 측면에서 계약을 동반한다. 이미 자금이 현물 매수에 투입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선물 포지션을 구축하기 위한 현금이 부족해지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운용사는 보유 주식을 담보로 하는 레포(Repo) 거래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입 이자는 비용 요인으로 반영된다.

현물형 레버리지 ETF는 장기적인 운용 안정성과 추적 효율성 측면에서 장점을 가진다. 현물과 선물을 혼합함으로써 선물 롤오버 비용이나 시장 수급에 따른 베이스스 변동 영향을 완화할 수 있으며, 급격한 시장 변동성이 나타날 경우의 괴리를 관리와 가격 안정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편이다. 포트폴리오의 현물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 수익을 직접 수취할 수 있다는 점도 차별화 요소가 될 수 있다. 특히 분기 배당을 지급하는 삼성전자와 같은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경우, 투자자는 레버리지 수익 외에도 정기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레포 차입 비용까지 상쇄하는 역할을 한다.

**② 선물형 레버리지 ETF:** 선물형 레버리지 ETF는 기초자산 포지션의 전액을 선물로 구성하는 구조로, 자금 운용의 유연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선물 거래는 전체 계약 금액이 아니라 통상 10~20% 수준의 증거금만으로도 포지션 구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200% 익스포저를 확보하더라도 전체 자금의 상당 부분이 현금으로 남게 된다. 일반적으로 약 70~80% 수준의 잉여 자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운용사는 이를 단기채권이나 CD 등 안전자산에 투자해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운용 효율성과 비용 측면에서 강점을 제공한다. 선물 포지션만 조정하면 되기 때문에 리밸런싱 과정이 상대적으로 단순하며, 거래 비용과 세금 부담도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 특히 잦은 매매가 필요한 레버리지 상품 특성상 이러한 비용 절감 효과는 장기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다. 더불어 잉여 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은 총 보수를 일부 상쇄하거나 횡보장에서 발생하는 수익률 잠식 현상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다만 선물형 구조는 롤오버 비용과 선물 시장 수급에 따른 베이스스 변동에 보다 직접적으로 노출된다는 약점을 가진다. 따라서 시장 환경에 따라 성과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며, 장기 투자 시 추적 오차가 누적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현물형과 선물형 레버리지 ETF는 각각 추적 안정성과 비용 효율성이라는 구조적 강점을 지닌다. 현물형은 괴리를 관리와 배당 수취 측면에서 유리하고, 선물형은 잉여 자금 운용과 낮은 거래 비용 측면에서 강점을 가진다. 어느 구조가 우위에 있는지는 시간의 경과보다 금리 수준, 롤오버 비용, 시장 변동성과 같은 시장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운용 구조의 차이를 이해한 뒤 투자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총 보수(수수료) & 총 자산 규모(AUM):** ETF 시장에서는 동일한 날짜에 유사한 형태의 ETF들이 동시에 상장되는 경우,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해 낮은 운용 수수료가 적용되는 패턴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금번 레버리지 ETF 상장 과정에서도 반영되었다.

국내증시에 상장되어 있던 기존 레버리지 ETF 종목들의 총 보수가 평균 0.41% 수준인 가운데, 새로 상장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16종 중에 15개 종목들이 0.0901%~0.2900%의 범위에서 총 보수를 설정(PLUS 삼성전자 선물 단일종목 인버스2X: 총 보수 0.49%)하고 있다. 참고로 레버리지 ETF들의 경우, 매일 리밸런싱이 진행되어야 하는 등 관리 비용까지

높아 일반적으로 패시브 ETF 대비 수수료가 높은 편이다.

다만 종목을 선택하는 기준에서 살펴볼 경우, 투자 패턴에 따라 총 보수보다 총 자산 규모가 더 중요할 수 있다. 정확하게는 촘촘한 호가 조성 여부(일반적으로 총 자산 규모는 거래 대금 및 호가 수준과 비례)이다. 레버리지 ETF들의 경우 애초에 장기 투자에 적합한 형태의 종목군이 아니기도 하지만, 실제로 국내 투자자들이 레버리지 ETF들을 단기 매매 수단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보유 기간이 3일~5일을 크게 넘어가지 않으며, 당일 매수·매도의 패턴 비중이 높은 종목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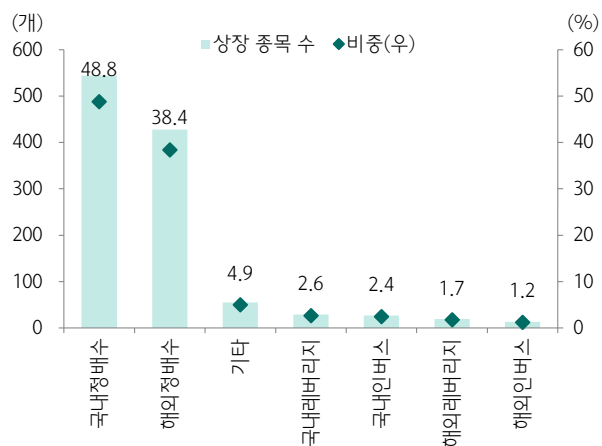
이 경우 이미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는 수수료 차이에서 나오는 비용의 괴리보다, 호가 스프레드의 중요성이 수익률 관점에서 더 커지게 된다. 매수 호가와 매도 호가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을 경우, 적시에 원하는 가격으로 거래를 체결시키지 못하는 슬리피지 손실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며, 특히 단기 매매가 빈번한 경우에는 이렇게 발생하는 비용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매매 패턴을 고려한 종목 선택의 기준 설정이 필요한 이유이다.

도표 1. 삼성전자 레버리지 ETF &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16종의 종목 개요

		삼성 자산운용	미래에셋 자산운용	한국투자 신탁운용	KB 자산운용	신한 자산운용		한화 자산운용		키움투자 자산운용	하나 자산운용
삼성전자	종목명	KODEX 삼성전자 단일종목 레버리지	TIGER 삼성전자 단일종목 레버리지	ACE 삼성전자 단일종목 레버리지	RISE 삼성전자 단일종목 레버리지	-	-	PLUS 삼성전자 단일종목 레버리지	PLUS 삼성전자 선물 단일종목 인버스2X	KIWOOM 삼성전자 선물 단일종목 레버리지	1Q 삼성전자 선물 단일종목 레버리지
	분류	현물형	현물형	현물형	현물형	-	-	현물형	곱버스	선물형	선물형
	신탁 원본액	1조665억원	5,970억원	200억원	350억원	-	-	165억원	712억원	100억원	95억원
	총보수	0.2900%	0.0901%	0.0901%	0.0901%	-	-	0.0901%	0.4900%	0.2500%	0.0901%
SK 하이닉스	종목명	KODEX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TIGER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ACE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RISE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SOL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SOL SK하이닉스 선물 단일종목 인버스2X	-	-	KIWOOM SK하이닉스 선물 단일종목 레버리지	1Q SK하이닉스 선물 단일종목 레버리지
	분류	현물형	현물형	현물형	현물형	현물형	곱버스	-	-	선물형	선물형
	신탁 원본액	1조3,665억원	7,470억원	200억원	380억원	530억원	530억원	-	-	100억원	95억원
	총보수	0.2900%	0.0901%	0.0901%	0.0901%	0.1000%	0.1000%	-	-	0.2500%	0.09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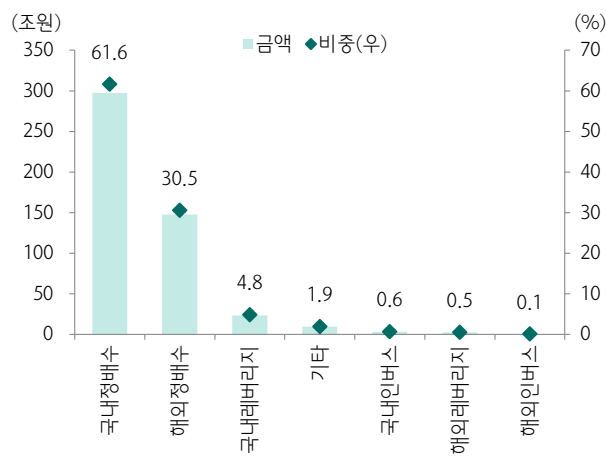
주: 신탁원본액은 ETF 설정 시 납입된 원금(투자 원본 금액) 순유입 자금. 금액은 5월 22일 한국거래소(KRX) 신규상장 종목 보도자료 기준  
자료: KRX, 하나증권

도표2. 정배수/레버리지/인버스 ETF 상장 종목 수



자료: KRX, 하나증권

도표3. 정배수/레버리지/인버스 ETF 순자산(AUM) 규모



자료: KRX, 하나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